



담뱃대는 대나무 양쪽에 대통과 물부리를 끼워넣어 완성한다. 대통은 'L'자 모양으로 휘어져 담배를 넣어 불을 붙이는 곳이고, 물부리는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곳으로 모두 쇠를 녹여 단련해 만든다.



## “영원히 남을 魂담긴 담뱃대 만들고 싶소”

###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4>

#### 제7호 백동연죽장 양인석씨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 시름 달래기, 담배 만한 것이 있을까...

모락 모락~ 하늘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인간사(人間事) 시름을 달래며 괴로울 것도, 짐작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급연 열풍이 분다 해도, 모든 것이 그렇듯 과(過)한 탓에 나쁜 것이지만 이 땅의 담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니, 없어진다 해도 우리 '담뱃대'의 맥(脈)은 이어질 것이다. 그 역시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이자 50여년 넘게 오직 담뱃대만을 만들어온 '진정한' 장인이 있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백동연죽장(白銅煙竹匠) 양인석씨(69·안성시 봉산동)는 15살때부터 담뱃대를 만들어 왔다.

그가 만드는 담뱃대는 역사의 사회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선인들이 신이었던 쥘신처럼 서민들에게는 보편적인 생활 문화였다.

어른들이 갖고 다니던 담뱃대는 여러 가지로 쓰였다. 길다란 곰팡대는 막대기, 지휘봉, 등 굽개에서 서당 훈장이 조는 아이들에게 군밤을 주는 용도로까지 사용, 담배를 피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친근함을 느꼈다.

그렇기에 여는 장인들처럼 몇 대를 거쳐 전승되거나 대(代) 스승이 있지는 않지만 손에 손을 타고 일상의 양식으로 꾸준히 내려 왔다. 양씨는 매형에게 담뱃대 공예 기능을 배웠고 지난 1989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가 만드는 담뱃대는 '상감'을 입힌 담뱃대처럼 임금이나 특정 계층이 썼던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썼던 '민대(몸통 부분인 대나무에 무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필터를 통해 빨아내는 담배가 있지만 광복 후 까지만 해도 담뱃대에 따른 잎의 '담배'를 넣어 피는 것이 많았어요."

#### 취향에 따라 담뱃대 길이 달라져

백동연죽장은 이 담뱃대를 만드는 데 있어 대통(일명 꼬바리·'L'자 모양으로 휘어져 담배를 넣는 부분)과 물부리(담배를 흡입할 때 입에 대는 부분)가 '백동'으로 된 것을 말한다.

백동은 등에 니켈을 혼합한 것인데 은빛광을 낸다. 니켈은 29~30%를 섞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더 많으면 굳기가 강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적으면 색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곰팡대'는 길이가 짧은 담뱃대를 하는 것으로 만드는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에나 지금이나 백동은 고철을 수집해서 만드는데 6·25 전쟁때는 총알 탄피를 많이 사용했다. 재료를 마련하면 모두 녹이고 녹인 쇠를 퍼서 두들기고, 이것을 다시 말아서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다. 대통은 담배를 담을 수 있게끔 바가지 모양으로 만든 후 'L'자 모양으로, 물부리는 입에 대는 부분일수록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줄질을 하고 광을 내면 완성. 간단한 듯 하지만 100여 과정이 넘는 공정이 필요하다.

쇠를 녹일 때는 대장간처럼 달구어 때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 이것만도 10번 정도는 해야 한다. 특히 양씨가 만드는 대통에는 휘어지는 부분 외벽에 구리로 감은 '구리잔받침'이 있어 더욱 견고할 뿐 아니라 그 만큼 손이 많이 간다.

요즘은 이 백동연죽에 대나무를 끼워 완성품을 만들어 팔지만 20여년전만 해도 모든 것이 분업화 돼있었다. 공장에서 만든 백동을 도매로 넘기면 소매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장죽 또는 단죽을 끼웠다. 사람마다 길이에 대한 취향이 달랐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길이를 맞춘 것. 몸통인 대나무는 모두 자연산으로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구입한다.

#### 열다섯살...매형에게 공예기술 배워

양씨는 생활수단으로 담뱃대 공예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20살때 나이가 차 군대를 갔다 온 것 외에는 지금까지 오직 담뱃대만 고집스레 만들어 왔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립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것 외에는 꼬박 앞야 일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던히도 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 담배를 끊은 양씨지만 그도 꽤나 피워뒀던 '골초'였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해서 탈이지 담배 자체에는 매력이 있다. 양씨는 "맛으로 담배를 피는 이도 있지만 진정한 애연가라면 자신에게 맞는 흡연량을 조절해 스트레스나 시름을 달래는 기호품으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1950~60년대만 해도 안성 지역에는 담뱃대를 만드는

이가 300여명이나 되었다. 송인동, 구포동, 명륜동 등 지역도 세분화돼 공장에서 2~3명씩, 또는 10여명씩 단체로 작업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뜨거나 갈수록 담뱃대가 팔리지 않자 하나 둘씩 일을 그만 두어 현재는 양씨와 그의 아들만이 담뱃대 만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장남이 代 이어주니 고마울 뿐"

양씨의 큰 아들 양승렬씨(48)가 전승자로 현재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고 있다. 양씨는 3남 1녀 중 큰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게 한스러운데 그대도 별 탈 없이 뒤를 이어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던데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자식이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부모의 뜻을 따라주니 대견하면서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만 담뱃대만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 그게 가슴 아프죠."

양씨는 작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다. 현재는 왼쪽 무릎에도 이상이 있는데 6~7년전부터 아파오다 최근 탈이 난 것. 그도 그럴 것이 50여년 넘게 앉아서 담뱃대만을 만들어 왔으니 몸이 온전할 리가 없다.

게다가 당뇨가 있어 수시로 물을 먹어야 하는 양씨. 요즘은 그래서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한다. 한창때야 하루 5개 이상의 담뱃대를 만들어 냈지만 요즘은 한 두개만 만드는 것도 벅하다. 그나마 그간 작업해 놓은 담뱃대의 말을 빌리면 일종의 재고)가 아직 수천개가 남아 있으니 다행. 하지만 사기는 사람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팔려 나갈지 의문이다.

누가 크게 알아주는 이 없이 50여년 넘게 담뱃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지겨울 때도 됐건만 양씨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아들에게 좀더 기술을 가르치고 죽기 전에 남길만한 멋진 담뱃대를 몇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리니 답답합니다. 역사적인 유물은 아니더라도 제 평생의 삶을 이어온 담뱃대에 혼을 불어 넣고 싶은 욕심이죠..."

어느 동네 할아버지처럼 평범하면서도 푸근한 인상의 그가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평범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천업(天業)으로 삼은 진정한 장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연섭·박도훈기자 nhpark@kgib.co.kr